

고고메(5부 능선)와 후지 스바루 라인 주변 하이킹

오추도(御中道)는 수행자가 후지산을 고고메 높이에서 한 바퀴 도는 특별한 등산로였습니다. 이곳보다 아래에는 삼림으로 뒤덮힌 경사면이 펼쳐져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화산암이 구르는 별세계와 같은 풍경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러한 풍경은 후지코 신앙에서 현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극락정토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오추도는 현재도 후지산 서쪽에서 붕괴가 진행 중인 침식곡 ‘오사와 붕괴’로 그 방면으로 가는 길의 통행이 금지되어 코스 전체를 일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침식곡은 산 정상에서부터 2km 이상에 걸쳐 뻗어 나갔고 그 폭 역시 과거 수백 년 동안 500m 정도로 넓어져 지날 수 없는 골짜기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오추도의 일부는 지금도 하이커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니와와 오쿠니와 - 두 개의 마당

오니와 버스정류장은 후지 스바루 라인 고고메 터미널에서 한 정거장 앞선 역으로 오니와 산책로와 오쿠니와 산책로를 가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오니와 산책로를 경유하여 고고메 버스 터미널까지 오추도를 걸기에도 편리한 버스정류장입니다.

오쿠니와 하이킹 코스는 오니와 버스정류장을 기점으로 산 정상에서 멀어지는 서북 방향으로 향합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낙엽송과 만병초, 월굴나무가 있는 그늘진 내리막길입니다. 경사면을 끝까지 내려간 곳에 자리한 기념품 가게의 영업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가게를 지나치면 오쿠니와의 움푹 패인 곳을 통과해 반대쪽 전망대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 폭 패인 웅덩이 너머로 매우 풍부한 표정을 짓는 후지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쿠니와의 이 구역은 바람이 강해서 낙엽송 중에는 거의 수평으로 자라난 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풍경이 이 구역을 텐구의 마당이라고 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텐구는 강력하고 신비로운 힘을 가진 전설 속의 마물로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높은 산에 산다고 여겨집니다. 이곳에는 붉은 도리이가 있으며 산책로변에는 텐구를 그린 기념비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오쿠니와 전망대까지 하이킹 왕복 코스의 소요 시간은 약 45 분입니다.

오니와 산책로의 기점은 고고메행 버스를 내린 정류장에서 길을 건넌 반대편에

있습니다. 산책로의 입구는 알기 쉽게 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부터 경사면에 설치된 돌계단을 약 30 분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오니와까지 올라가면 산책로는 오추도(해발 2,400m)로 연결됩니다. 오니와에서 오추도를 동쪽으로 향해 1 시간 정도 걸으면 후지스바루 라인 고고메 버스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고고메 버스 터미널 방향과는 반대인 서쪽을 향해 오사와 봉괴를 보러 갈 수도 있지만, 이 코스는 길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현재는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오쿠니와 산책로와 달리 오니와 산책로는 후지산의 삼림한계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데군데 무너진 흔적도 보이는 화산암 지형에는 꽃이 핀 만병초가 곳곳에 산재하고 낙엽송과 자작나무만이 덤성덤성 자라나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 쪽 풍경과 북쪽 풍경 모두 장관을 이루며 맑은 날에는 저멀리 남알프스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책로는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깊은 골짜기 몇 곳을 지나는데 여기에는 측화산의 분화로 생긴 여러 개의 분화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후지산의 웅장함과 화산 분화의 장엄한 위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